

<서평>

쿠데타의 시간, 대사의 기록: 미얀마(버마)의
2021년 그리고 미래 전망
이상화. 2022. 『롤러코스터를 탄 미얀마』 서울: 박영사.

김 지 훈*

I. ‘쿠데타의 시간’과 ‘외교관의 시간’

주재국의 쿠데타를 본인의 근무 기간 중에 겪기를 바랄 외교관이 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2020년부터 전세계를 강타한 Covid 19로 전 인류가 전례 없는 고통을 겪는 시기와 겹치면서, 백신과 의료 기반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 그 시간을 맞는다면, 모든 이에게 이중, 삼중의 인고의 시간일 것이다. 군부가 그 권력을 절대 잃지 않도록 헌법으로 제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부의 이해를 대변하는 ‘군부’ 정당¹⁾ 역시 존재하는 국가에서 대중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정당²⁾의 압승의 선거 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날(2021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이메일: jhkim@inha.ac.kr jeehkim@gmail.com ORCID ID: 0000-0001-7985-5519

1) USDP (the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를 지칭한다. USDP는 전직 장군 떼인세인(U Thein Sei)에 의해 2010년 창당되었으며, 떼인세인은 2011-16년 대통령을 맡았다.

2) 수찌(Aung San Suu Kyi, 1945 -) 여사가 1988년에 공동 창당한 NLD(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민주주의민족동맹’의 약칭이나, 이 글에서는 NLD로 약칭한

년 2월 1일)에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어떨까? 지난 십 여년간 어렵사리 만든 민주주의의 연약한 골격마저 쿠데타로 허물어지는 상황, 코로나 팬데믹의 열악한 보건 상황 아래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저항과 죽음을 길가에서 목도한다면 그 관찰자의 시간과 기록은 참으로 특별한 것이 된다. 이 시간에 대한 기록을 생생히 읽을 수 있는 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책이 될 것이다.

본인 임기 후반에 발생한 쿠데타로 인해 더 길어진 약 4년간의 임기 동안 주 미얀마 대사를 역임하고 2022년 12월 현재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로서 재직 중인 이상화 대사의 저서 『롤러코스터를 탄 미얀마』는 그가 부임한 2018년도부터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전후의 시기, 그가 이임한 2021년말까지 미얀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폭 넓은 주제에 대해 한국 대사의 시각에서 쓴 책이다.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듯한 미얀마의 정치, 사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미래에 대해 저자 스스로 “I am cautiously optimistic” (p.5)이라고 조심스레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쿠데타의 시간, 대사의 시간 그리고 미얀마의 현재를 기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책이다.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약 70여년 전에 발간된 버마에 관한 다른 저자와 책을 떠올렸다.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에서 고전으로 손꼽히며, 동남아시아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다원사회(plural society) 개념을 만든 퍼니발(J. S. Furnivall, 1878-1960)과 그의 저서(1939, 1948)이다. 필자가 SOAS³⁾에서 동남아 지역 연구에

다)는 수찌 여사가 1989년 7월 가택 연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총선에서 80%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였다. 군부는 궁극적으로 그 선거 결과를 무효화했다. 2020년 총선 결과는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유린당했다(Pletcher 2022). 쿠데타 전개 과정은 이 책과 McKenna (2022)를 참고.

3) SOAS는 런던대학교 시스템에 속해 있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연구 중심 대학인 School of Oriental & African Studies를 말한다. 미얀마 정국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수찌 여사는 SOAS와 옥스퍼드대학교의 St. Hugh's College에서 학위를 했다. 공교롭게

입문할 때, 정치학자 사이델(John Sidel) 선생의 강의계획서에 필독서로 지정되어 읽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원전 일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페니발은 동남아가 서구 제국의 분할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통치되던 시기, 특히 인도와 버마가 영국 통치 하에 있었을 때, 지금은 외교관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식민 고위 관료로서 오랫동안 관찰해온 과거의 버마, 현재의 미얀마에 대한 통찰을 담았다. 근래에도 지속적으로 페니발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는 서평과 논문들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보면, 페니발의 저서는 후대 학자들에게 학문적 영감의 ‘화수분’이라고 할 수 있다(e.g. Peacock, 1972; Coppel, 1997; Lee, 2009). 페니발처럼 한국에서도 외교관 출신 저자의 통찰력 있는 저서, 동남아 어느 한 나라에 대한 심도 깊은 학술 저서이든 시점, 관점이나 주제가 뚜렷한 개괄적인 소개서이든 잘 쓴 저서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던 차에 접한 책이라 이 책의 출간은 더욱 반가웠다.

II. ‘외교관의 기록’: 미얀마의 현재 분석과 미래 전망

저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 이 책의 ‘들어가는 말’, 그리고 1장과 2장은 2018년에서 2021년말까지 저자가 경험한 미얀마의 핵심적인 정치 사회적 격변의 시간을 다룬다. 실권을 놓치지 않으려 꿈수의 꿈을 쓰는 군부 집단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 간의 불편한 ‘동거’ 시간⁴⁾ 그리고 다수 소수 민족간, 군부와 지역 및

계도 필자 역시 이 두 곳 칼리지에서 수학했다.

4) 수찌 여사는 옥스퍼드대 교수인 영국인 남편(Michael Aris)과 결혼하여 두 자녀가 있다. 군부가 2008년에 만든 현행 미얀마 헌법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국가 수반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헌법 59조), 군부는 25%의 의원을 지명할 수 있고(헌법 109조, 141조), 개헌은 의원 75%의 동의가 필요하다(헌법 436조)

소수 민족을 주 배경으로 한 무장 민병대 간 긴장, 불신 그리고 합종연횡(合從連橫)의 역사와 현재, 국제사회에서 주목받아온 ‘로힝자(Rohingya)’ 문제, 쿠데타의 시간, 이에 얽힌데 덮친 코로나의 시간, 그리고 2022년말 현재 아직 아물지 않고 현재 진행형인 정치적 사회적 긴장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2장은 저자가 대사이기 때문에 기술 가능했을 ‘현재 정국’의 역동적 상황을 주요 인물과의 직접 만남과 대화의 기억과 함께 생생하게 묘사한다. 쿠데타 이전의 선거 과정, 쿠데타 이후의 시민의 저항, 시민불복종 운동의 주체(의사, 공무원 등), 주요 인사(수찌 여사, 쯔모툰(Kyaw Moe Tun) UN 대사 등)의 역할, 시민들의 시위, 군부의 대응과 그 방식(유혈진압, 인터넷 차단, 민간에 대한 집단처벌 전술 등) 그리고 현지 여러 국가의 대사관이나 미얀마 주요 인사와의 교류를 통해 얻은 내용을 주요 사건, 주요 세력에 대한 묘사, 때로는 길거리의 시위대에 대한 섬세한 묘사로 2021년 2월 전후의 미얀마 상황을 실시간 중계를 보듯 빠져들게 한다.

3장과 4장은 2020-21년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미얀마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주로 다룬다. 3장은 미얀마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핵심적인 단어를 한국의 것과 함께 기술하면서, 미얀마 고유의 역사, 개념, 인물을 다룬다. 예를 들어, 민주화 과정의 아픈 역사, 한국의 정(情)과 비슷한 ‘딤요진(Than Yaw Zin)’, 공통적으로 높은 교육열, 두 나라 모두 배출한 유엔 사무총장 - 우탄트(U Thant) 제3대 유엔 사무총장, 방정환 작가와 마웅저(Maung Zaw) 작가에 대한 소개가 그 예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미얀마 간의 연결 고리도 다루는데, 이주노동자, 우정의 다리, 양곤(Yangon)의 한국 산업 단지 등 한

(이 책, p.250). 다시 말해, 현행 헌법은 군부의 헌법 개정 비토권을 부여하며, 함께 수찌 여사가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2015년 11월 총선 승리 결과로 2016년 3월부터 2021년 쿠데타 직전까지 NLD가 집권하는 기간에도 수찌 여사가 대통령이 될 수 없었고, 국가고문(State Counselor)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만들면서 외교장관을 겸하여 맡아 실질적 권력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였던 이유이기도 했다(Pletcher 2022).

국-미얀마 간의 관계와 미얀마 투자에 도움이 될 조언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초반은 미얀마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가감 없이 다룬다. 미얀마-태국-라오스 접경 산악 지역이 소위 마약 생산의 ‘골든 트라이앵글’이 되고 미얀마가 세계 2위의 마약 생산국이 된 현실과 그 배경이 맨 앞에 등장한다. 민생의 핵심 토지 문제가 이를 잇는다. 군부 정권의 토지 수탈과 몰수 그리고 수찌 여사의 민선 집권당 NLD의 토지 반환 공약 이행의 실질적 어려움이 그것이다. 아울러, 전력난, 최고의 티크 목재 삼림을 가진 나라면서 동시에 산림황폐화를 겪는 환경 문제 등 미얀마가 당면한 난제에 대해 상술한다. 4장 후반부는 대사를 투어 가이드로 삼아 독자가 미얀마의 도시와 지역에 대해 안내 받는 관광의 장이다. 미얀마의 새 수도 네피도(Nay Pyi Taw), 경제 수도 양곤, 왕국의 수도 만달레이(Mandalay),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된 천불천탑과 함께 석양이 아름다운 바간(Bagan), 보석의 도시 모곡(Mogok) 등 미얀마의 주요 도시를 자세히 알게 된다. 사진과 저자의 방문 기록이 함께 활용된 이 장을 읽다 보면, 관광 산업이야 말로 미얀마가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망 산업이라는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게 된다.

마지막 5장은 길이는 짧지만 내용은 묵직한 장이다. 현재 헌법과 군부의 실질적 지배 상태인 미얀마의 정치적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탐색한다. 저자는 두 가지 핵심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듯하다. 현재의 군부 시대 그리고 수찌 여사의 카리스마적 후광과 함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NLD가 수찌 이후에는 민주주의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는 가능한가? 이는 미얀마에 대해서 더 알수록 풀기가 더 어려운 난제이다. 특히나 긍정적인 혹은 낙관적인 전망이나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그래도,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사로서 가능했던 정부, 군부, 정당 및 주요 기관

과 재야의 주요 인물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 얻은 대화의 내용과 미얀마 사회에 대한 꼼꼼한 관찰을 엮어 답을 시도한다. 현재의 헌법을 통해서도 개헌이 불가능한 제도화된 군부의 직간접 영향력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아울러 은퇴의 시기가 다가온 군부 리더와 수차례 여사 이후 차세대 지도자로 등장 가능한 현 정계와 재야의 인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포스트 수찌 시대의 리더가 될 잠재성이 큰 인물들은 1988년 학생 운동의 지도자급 인사를 지칭하는 ‘88세대’ 인사들이다. 저자는 이들의 이력과 잠재성을 직접 만났던 경험과 함께 생생하게 소개한다.

미얀마 사회 자생적인 변화가 어렵다면 외부적 영향을 통해 정치 지형의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저자는 책의 맨 후반 몇 페이지에 걸쳐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까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1995년과 2015년의 총선 그리고 2000년대의 주요 사건과 국제적 역학관계를 통해 실마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스님들이 주요 행위자로 정국의 변화를 이끌어낸 2007년의 샤프론 혁명과 2008년의 나르기스 태풍으로 인한 10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던 재난과 같은 위기가 군부 리더쉽 교체시기 국제사회의 적절한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이어진다면, 변화의 단초로 작동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의 가정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변수가 여러 개인 ‘방정식’을 만드는 것이며, 이는 희망을 ‘영끌’한 애정까지 쏟아 부은 것이다. 아마도 저자는 이 시나리오를 희망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군분투 했을 것이다. 지금도 여러 영역에서 대치 중인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글로벌 파워와 유엔과 아세안 등 국제사회가 ‘복합 방정식’에 포함되는 초고난도의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미얀마 미래에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으로 책을 마무리한다.

저서에 대한 아쉬움도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첫째, 각 장과 세부 절의 제목은 속을 차지하고 있는 알찬 내용과 서평자가 ‘대사의

기록'이라고 이 책의 특징점을 지적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 각 장의 현재 제목에 부제를 적절히 붙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 각 장을 다 읽기 전까지 장의 내용을 미리 가늠할 만한 표식과 안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한 장, 한 장 다 읽고 나서야 저자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하고 알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학자들이 사용하는 참고 문헌과 각주를 통한 출처의 표시가 더 꼼꼼히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저자의 생각에 기반이 된 주요한 저작이나 생각의 출처는 본문 내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인용되는 통계 수치 등의 출처 표시는 부족하다. 여기 까지 꼼꼼하게 마무리 되었다면, 학자들과 독자들이 이 책을 근거 삼아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 그 자료원을 확인하며 이 책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을 것인데, 아쉽다.

책 여기 저기에 담겨 있는 대사의 시간 동안 이루어진 세세한 관찰과 기록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크다. 특히나, 논문 중심으로 '전문화'되어 버린 한국 학계에 중요한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짧게 말해, 『롤러코스터를 탄 미얀마』는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께서 지금 바로 읽어 보실 가치가 큰 책으로 추천한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현지 사회를 잘 관찰하고, 호기심을 약간의 학문적 연구 틀과 함께 글로 표현하는 한국인 주재원과 외교관 등 일반 저자들의 특별한 시간과 관점이 주목할 만한 기록으로 남는 후속 저서들이 계속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Coppel, Charles A. 1997. "Revisiting Furnivall's 'plural society':

- Colonial Java as a mestizo society?" *Ethnic and Racial Studies* 20(3): 562-579. DOI: 10.1080/01419870.1997.9993975
- Furnivall, John Sydenham. 1939[2010]. *Netherlands India: A Study of Plur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printed in 2010).
- Furnivall, John Sydenham. 1948[2014]. *Colonial Policy and Practice: A Comparative Study of Burma and Netherlands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printed in 2014).
- Lee, Hock Guan. 2009. "Review of Furnivall's Plural Society and Leach's Political Systems of Highland Burma, by J.S. Furnivall and Edmund R. Leach." *Sojourn: Journal of Social Issues in Southeast Asia* 24(1): 32-46. <http://www.jstor.org/stable/41308110>.
- McKenna, Amy. 2022 "2021 Myanmar coup d'état". *Encyclopedia Britannica*, 12 Jul. 2022, <https://www.britannica.com/event/2021-Myanmar-coup-d-etat>. Accessed 24 November 2022.
- Peacock, James L. 1972. "Plural Society in Southeast Asia." *The High School Journal*, 56(1): 1-10. JSTOR, <http://www.jstor.org/stable/40365612>.
- Pletcher, Kenneth. 2022 "Aung San Suu Kyi". *Encyclope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Aung-San-Suu-Kyi>. Accessed 23 November 2022.

주제어: 미얀마(버마), 쿠데타, 코비드 19, 외교관의 기록

Key Words: Myanmar (Burma), Coup d'état, Covid 19, Diplomat's Record